도, UAM 추진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아

〈도심항공교통 산업〉

생태계 구축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UAM 산학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항공 얼라이언스 UAM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항공교통법 시행(4월 25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인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전북자치도 UAM 추진전략 등이 논의됐다.

도와 관계기관은 △UAM산업 정책동향 및 타 시도 추진현황 △UAM 시범사업 추진전략 및 타 시도 동향 △도, 새만금개발청, 전주시, 남원시 등 관계기관별 UAM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소개를 진행했으며, 시범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SKT가 'SKT 도심 항공교통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전북자치도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전북 자치도는 향후 항공동맹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육군, 공군, 서울지방항공청 등 공역 관련 이해관계자 및 타 시도 기업 중 이전을 고려 또는 희망하는 기업까지 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UAM 기술개발경연대회' 참가 자격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해 도내 저변확대와 도민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UAM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전략이 모범적인 준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道 어린이창의체험관, '힐링체험의 날'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운영

전북자치도가 어린이들의 힐링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아리 FBI(Farm Business Industry)와 함께 특별 프로그램 '힐링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프로그램 '힐링체험의 날'은 6차 산업에 발 맞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속 과학과 환경의 중요성을 주제로 6~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흙 속에서도 친구들이 산다고?(5월 26일) △쑥쑥 자라라 방울토마토야 !(5월 31일) △지구야 사랑해 !(6월 2일) △크아앙 공룡이다 !(6월 6일)와 같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흙 속에서도 친구들이 산다고?'는 과자 등을 이용해 식용화분을 만들며, 미생물을 비롯한 흙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지구야 사랑해!'는 동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멸종 위기 동물을 알아보고, 동물 가방 등을 만들며 멸종 위기 동물과 지구를 살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6일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링체험의 날-흙 속에서도 친구들이 산다고?'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으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남은 3개의 강좌는 각 강의일 6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jbchild.kr) 체험교육(상상문화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킹 형성… 부안군, 국제 협약 체결

말레이시아 랑카위 · 인도네시아 바투 등 상호 발전방향 모색

부안군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제 네트워킹 형성과 성공적인 지질공원의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랑카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인도네시아 바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제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을 대표해 전북특별자치도(강해원 환경녹지국장), 부안군(권익현 군수), 고창군(김철태 부군수)이 참석했으며 랑카위에서는 개발청장(다토하슬리나 빈티 압둘 하미드)과 기획개발 차장(완 카마룰 파이살 빈완 카마딘), 지질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장(닥터아즈밀 무니프 빈 모드 부하리)이 참석했다.

바투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 의장(이 와얀 고방 에디 수치프토)과 사무국장(케투트 세티아 다르마 신), 지질공원 전문가(오카 아가스티아)가 참석해 지질공원의 운영관리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권익현 군수 등은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랑카위를 방문해 랑카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랑카위 UGGp(UNESCO Global Geopark)는 랑카위 개발청(LADA, Langkawi Development Authority)에 관리 기구를 두고 있으며 2007년 동남아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지역의 지질·생태·문화를 관광화 한 지오투어리즘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군은 랑카위 UGGp의 숙련된 지질공원 운영관리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부안 지질공원의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23일에는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바투 UGGp와 협약을 맺었다.

바투 UGGp는 화산이라는 지질학적 특징으로 전북 서해안과 유사성을 갖는 곳이다.

바투 화산섬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화산분출 과정과 그에 따른 지질구조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대자연 학습장으로 화산테마의 교육·체험, 관광 코스 프로그램, 지질유산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랑카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제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권익현 군수는 "세계지질공원간 상호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질공원 운영관리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각 국의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교육·체험 개발 프로그램 발굴해 지질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간 국제교류를 통해 부안이 세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점으로 글로컬(글로벌+로컬의 합성어) 도시 부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22일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10명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찌 시타 차관, 전북 방문

농촌개발 정책 관련 벤치마킹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찌 시타(H.E Chy Sitha) 농촌개발부 차관 등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10명이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담이 이뤄졌다. 환담장에서 김 부지사는 찌 시타 차관에게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코이카(KOICA)와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농어촌 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캄보디아 방문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으며, 첫째 날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을 이해하기 위해 임실 치즈마을을 방문하고, 둘째 날은 '농촌 개발분야 광역지자체 기관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제시 농촌신활력사업단 등을 방문했다.

찌 시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차관은 "방문을 반갑게 환영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농촌개발분야의 우수성을 매우 잘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이번 방문으로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전북, 평화통일포럼 개최

호혜성 · 적대감 완화의 강화 등 4가지 언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3일 '통일환경 평가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일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포럼으로 진행했다.

주상현 포럼연구위원장(전북대 교수)이 좌장으로 진행한 포럼은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지역의 자문위원,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박영자 연구위원은 숙적관계 이론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외교 정책의 관성을 무효화 할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내 충격과 △위협이나 경쟁 가능성의 기존인식 기대치 변화, △상호적 호혜성, △호혜성과 적대감 완화의 강화 4가지를 언급했다.

또한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군사적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변동'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한국 주도의 '조력자'의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충격 → 기대 변화 → 호혜성→ 강화'라는 숙적관계 종결의 기본 모델을 한반도에 구체화 시키는 과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현만 전북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한반도 정세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